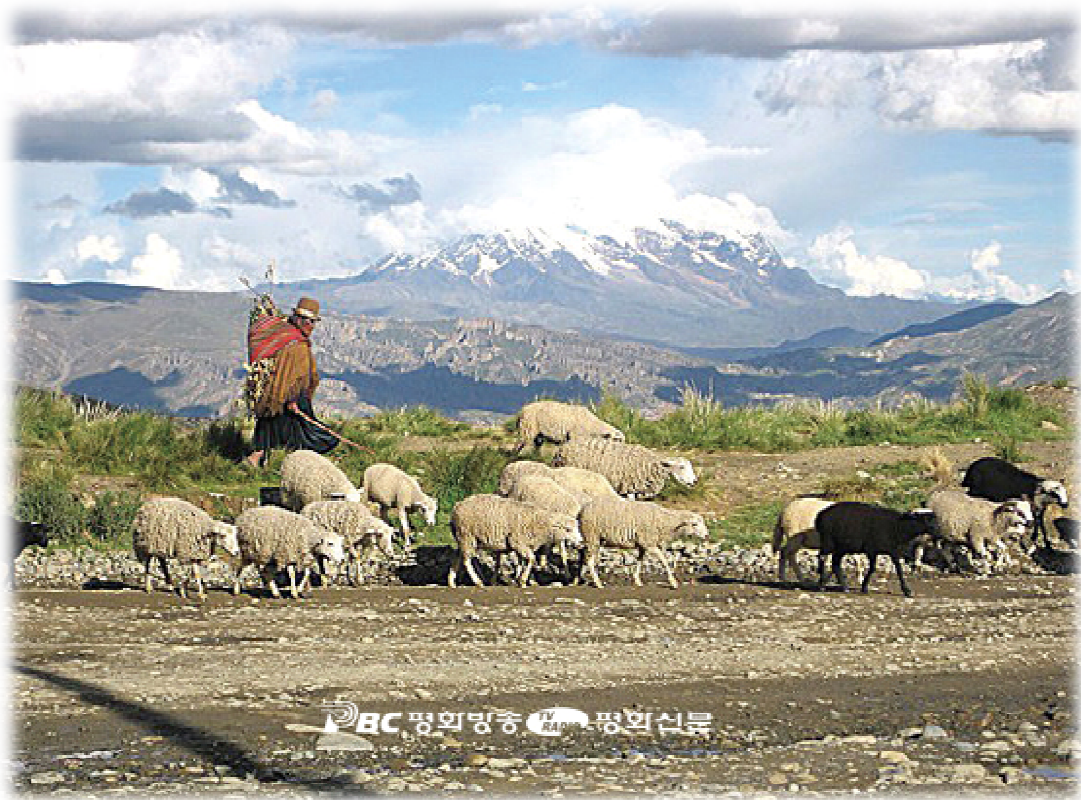


2013 8.25 연중 제 21 주일

제 1 독서 : 이사야 66,18-21 <그들은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데려오리라.>

제 2 독서 : 히브리서 12,5-7.11-13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신다.>

복 음 : 루카 12,22-30 <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볼리비아의 라파스는 수도는 아니지만 모든 관공서가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간 곳은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엘 알토**라는 지역으로 해발 4300 미터의 고지입니다. 지형은 사발 (Bowl) 모양으로 생겼는데 미국과 달리 낮은 곳에는 부자들이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분지 위쪽에 사는데 가옥은

희한하게도 지붕은 없고 벽만이 있습니다. 이지역에는 또한 나무가 없기 때문에 건축자재로는 흙을 구어서 벽돌을 굽는 기술이 잘 발달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가서 다시한번 느낀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참으로 오묘하고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 부터 살아왔고 또한 하느님은 모든 것을 공정하게 주셨습니다. 신비스럽게도 하느님은 인간을 어떤 환경에서도 살수 있도록 하여 지혜를 주셨는데, 인간들은 서로가 가진것을 가지고 차별하며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옛 성현의 말씀에 인간은 마음이 가는데로 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좌우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삶은 시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기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하느님한테 가 있지 않으면 하느님은 내 안에 계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문 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를 얻기 위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노력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제 2 독서의 히브리인 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바오로께서는

“내 아들이,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 내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줍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기 위하여 많은 책들을 읽어봅니다. 제가 그 많은 책들을 읽고나서 결론적으로 얻은 것은 모두가 한결같이 상대방의 말을 그냥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은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러한 태도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시 잘못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 2 독서의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재조명하시며 거룩한 주님의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들은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데려오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6,18-2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려 오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그들 가운데에 표징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타르시스와 쏫, 활 잘 쏘는 루드, 투발과 야완 등 모든 민족들에게 보내고, 나에 대하여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 보내리니, 그들은 민족들에게 나의 영광을 알리리라.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끗한 그릇에 제물을 담아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듯이, 그들도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주님에게 올리는 제물로, 말과 수레와 마차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그러면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사제로, 더러는 레위인으로 삼으리라. —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신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2,5-7.11-13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이여,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의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 내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줍니다.

그러므로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22-30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